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및 귀인이 사회적 정보처리와 처벌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 성 숙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적 배척 및 수용 경험과 이에 대한 귀인이 사회적 관계 정보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아울러 사회적 정보처리 이후 처벌행동에서의 실험조건 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배척/수용-사회적 정보처리-후속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2(사회적 배척/수용) × 2(내부귀인/외부귀인) 피험자간 이원무선요인설계의 각 조건에 15명씩 총 60명의 남녀 대학생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사회적 정보의 회상에서는 선행연구(Gardner, Pickett, & Brewer, 2000)와 달리,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사회적 사건을 더 많이 회상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처벌행동에서는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관계 맥락의 부도덕행위를 더 크게 처벌했다. 본 연구를 Gardner 등(2000)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들을 논의했다.

주제어 : 사회적 배척, 사회적 수용, 귀인, 사회적 정보처리, 처벌행동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2005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이 논문에 보고된 자료는 교신저자의 지도로 수행된 조성숙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훈석,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760-0494. E-mail : hchoi@skku.edu

인간이 타인들에게 수용되고 그들과 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소속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Abrams, Hogg, & Marques, 2005; Williams, 2001)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제, 신뢰, 및 자기-고양 등의 기본 동기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Fiske, 2004). 반면에 소속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유발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실험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배척과 수용경험에 따른 개인의 인지, 감정 및 행동 상의 결과를 탐색했다. 이 시도를 통해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개인이나 통제조건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예: Buckley, Winkel, & Leary, 2004;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자기조절 실패(예: 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부정 기분(예: Buckley et al., 2004; Williams & Sommer, 1997), 자기-파괴적 행동 및 건강저해 행동(예: Twenge et al., 2002), 지적 능력의 손상(예: Baumeister, Twenge, & Nuss, 2002), 인지적 해체(예: Twenge et al., 2003) 등을 보임을 알아냈다. 또한 사회적 배척경험은 피해자의 스트레스 및 불안 수준을 증가시켜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Williams, 2001), 신체적 고통과 연관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는 신경적 증거도 보고되었다(예: Liberman & Eisenberger, 2006).

이처럼 사회적 배척경험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회적 배척의 원인과 이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배척에 관한 서구의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에서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나 면접, 상담사례 기법 등을 적용하여 사회적 배척을 유발하는 학교 환경요인이나 배척자 특성 등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두었다(예: 김혜원, 이해경, 2000; 이춘재, 광금주, 1999; 이해경, 김혜원, 2001; 정선진, 이은혜, 고윤주, 김영신, 2001; 한중철, 이민아, 이기학, 1999). 따라서 사회적 배척 및 수용 경험과 후속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일부 연구(예: 최훈석, 조성숙, 용정순, 권영미, 2006)를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못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및 수용 경험에 따른 인지 및 행동 상의 결과를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또는 수용 경험과 이에 대한 귀인이 개인의 사회적 정보처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후속행동도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험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행해진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적 배척/수용과 행동 간에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후속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최훈석 등, 2006). 따라서 사회적 배척/수용-정보처리-행동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후속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여 사회적 배척이 정신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및 임상 장면에 적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사회적 배척 또는 수용 경험이 사회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이 사회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Leary와 Baumeister(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소속수준을 감시하여 소속 욕구의 위협에 대처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Gardner, Pickett, & Brewer, 2000; Pickett, Gardner, & Knowles, 2004)은 사회적 배척 또는 수용 경험에 따라서 후속 정보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예를 들어, Gardner 등(2000)은 사회적 배척 경험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피배척자의 기억을 편향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컴퓨터를 통한 가상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들로부터 배척 또는 수용을 경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개인 맥락 또는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참가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더 많이 회상했다. 이 결과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사회적 관계 맥락 사건들에 대한 깊은 처리를 유발하여,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잘 기억하도록 함을 시사한다. 이 해석과 일관되게 Pickett 등(2004)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소속욕구 수준이 높거나 실험 상황에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사회적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확성도 높았다.

이처럼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피배척자들이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정보를 잘 기억하는 것은 소속욕구를 복구하려는 일종의 자기조절행동일 수 있다(Gardner, Pickett, & Knowles, 2005). 즉,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타인들에게 소속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여 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rdner 등(2005)은 사회적 감시체계 모형을 제안하고, 사회적 배척 경험은 피배척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감시 체계를 활성화시키며, 그에 따라서 자신의 소속수준에서 위협이 감지될 때마다 환경에서의 사회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교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속욕구의 복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정보처리에 관한 Gardner 등(2005)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속욕구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정보의 처리요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소속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정보의 처리요구가 낮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사회적 관계 맥락의 정보를 더 잘 회상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배척 경험은 사회적 정보에 대한 처리요구를 높이는 반면, 사회적 수용경험은 사회적 정보에 대한 처리요구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정보의 회상에서 일종의 대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Gardner 등(2000)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기는 하지만 이 결과는 아직까지 반복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Gardn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개인 맥락과 사회적 관계(대인간 및 집단) 맥락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동 사건들을 문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상을 측정했다. 그러나 Gardner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사건들의 상당수에서 해당 사건의 친사회성 정도에 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예: “내가 뛰는 축구팀이 우승했다”, “기숙사를 대표하는 몇 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우리 학교의 농구팀이 준결승에 진출할 것 같다”). 따라서 자극정보에 담긴 사회적 사건들의 친사회성이 높은 경우에도 Gardner 등(2000)의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사건들에 내포된 친사회성 정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정보가 높은 수준의 친사회성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배척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정보를 더 잘 회상하는 일종의 동화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통상 친사회적 행위는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되며, 여기에는 도움행동, 협동행동, 타인과의 경험 공유, 타인에 대한 관심 표명 및 타인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일련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Schroeder, Penner, Dovidio, & Piliavin, 1995).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행위 역시 넓은 의미의 친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정보가 높은 수준의 친사회성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Gardner 등(2000)의 주장대로 사회적 수용 경험에 따라서 사회적 정보 처리요구가 낮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성 수준이 높은 자극정보를 사용하여 사회적 정보를 구성하고, 이 경우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 정보를 더 잘 회상하리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은 사회적 배척조건보다 수용조건에서 우세하다.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귀인의 상호작용

앞에서는 사회적 배척이나 수용 경험이 사회적 관계 정보의 처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정보 회상에서의 차이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에 대한 개인의 귀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사람들이 자신이 배척되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으며, 또한 사회적 배척 경험이 부적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배척된 사람들은 자신이 배척된 원인을 알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사회적 배척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배척에 대한 귀인의 영향이 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

적 배척 경험에 대한 귀인의 효과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Williams, Cheung, 및 Choi(2000)의 연구(실험 3)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과 실험협조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도록 조작하여 사회적 배척이나 수용 경험에 대해서 원인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조건의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는 자신이 타인들에게 수용된 원인을 외부귀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귀속시킬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와 달리, 사회적 배척조건의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배척의 원인을 외부귀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는 배척의 원인을 귀속시킬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실험 결과, 사회적 수용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배척조건의 참가자들이 높은 수준의 부정 기분을 보고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불일치해서 배척되었을 때보다 의견이 일치하는데 배척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부정 기분을 보고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배척된 원인을 귀속시킬 근거가 없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부정 기분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Zadro, Williams 및 Richardson(2004)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참가자를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스크립트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참가자들의 자유선택에 의한 것으로 믿도록 했다. 따라서 스크립트 조건에서 수용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스크립트에 따른 결과이므로 외부귀인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자유 선택 조건에서 수용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그 원인이 모호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스크

립트 조건보다 자유선택 조건에서 배척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마음 상함(hurt feeling)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결과로는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한 내외귀인의 영향을 추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가자 자신을 배척했지만 그 원인이 상황의 탓이었는지 자신의 탓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부귀인, 외부귀인, 또는 무귀인이 모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척에서 귀인의 영향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귀인을 조작할 때 외부귀인과 내부귀인의 조작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이 실험협조자들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도록 조작하여 귀인의 역할을 알아보았던 Williams 등(2000)의 연구에서는 외부귀인의 조작은 이루어졌으나 내부귀인의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Zadro 등(2004)의 연구 역시, 스크립트 조건에서는 배척되거나 수용되는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할 수 있지만 자유선택 조건에서는 명확하게 내부귀인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분명한 귀인 단서가 없는 조건의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척/수용에 대한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귀인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외부상황 또는 자신의 탓으로 귀인할 수 있어서, 무귀인 또는 내/외귀인의 가능성이 혼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의 원인을 명확하게 내부 또는 외부 귀인하도록 조작하여,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사회적 정보 회상 간의 관계를 귀인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수용을 경험하고 이를 외부귀인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

되어 사회적 수용이 발생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한 것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되어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고 이를 외부귀인 하는 경우에는, 타인들로 인해서 배척이 발생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것은 친사회적 행위라고 해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사회적 수용을 경험하고 이를 내부귀인하거나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고 이를 내부귀인 하는 경우에도, 배척/수용 경험으로 인해서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 배척과 사회적 수용 조건 간에 사회적 정보 회상에서 차이가 없으리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의 회상에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귀인의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화했다.

가설2. 사회적 배척/수용의 원인을 외부귀인했을 때,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은 사회적 배척 조건보다 수용 조건에서 우세하다. 반면에 사회적 배척/수용의 원인을 내부 귀인했을 때는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에서 사회적 수용과 배척 조건 간에 차이가 없다.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 사회적 정보 회상 - 후속 행동 간의 관계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귀인에 따른 사회적 정보처리에서의 차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배척/수용 경험으로 인해서 점화된 지식 구조가 후속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된 지식구조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참조: Wheeler & Petty, 2001). 예를 들어, Bargh, Chen 및 Burrow(1996)는 의미를 점화시켜 특정지식구조를 활성화시켰을 때, 이 지식구조와 관련된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이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단어들이 무선적으로 섞여 있는 문장들을 주고 이를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재구성하도록 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섞여 있는 문장들 안에 무례함(예: 공격적으로, 되바라지게, 무례하게)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공손함(예: 존경하는, 참아내는, 예의바른)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세 번째 조건에서는 무례함이나 공손함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무례함으로 점화된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이나 공손함으로 점화된 참가자들보다 무례한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 Bargh 등(1996)은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운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점화되거나 점화되지 않았다. 실험 결과,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이 점화된 참가자들은 통제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느리게 걸었다. 이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고정관념과 일관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관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지식구조인 자기개념의 활성화에 의해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Brewer와 Gardner(1996)는 자기개념을 개인적 자기, 관계적 자기, 집합적 자기

의 세 수준으로 구분했다. 개인적 자기는 준거가 되는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자기평가로, 자기의 특성과 자기가치와 관련된다. 이 개인적 자기가 특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행동한다. 관계적 자기는 대인 맥락에서의 자신의 역할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관계적 자기가 특출하면 개인들은 특정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특정한 사람에 관련된 역할행동에 따라서 자기가치를 결정한다. 집합적 자기는 사회적 집단 소속에 근거하여 자기를 정의한 것이다. 이 집합적 자기가 특출하면 사람들은 내집단의 표상에 동화되고, 집단간 비교에서 내집단이 차지하는 지위에 의해서 자기가치가 결정된다. 이러한 자기개념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특정 자기개념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Brewer & Gardner, 1996), 활성화된 자기개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주장과 일관되게, Ybarra와 Trafimow (1998)는 행동의도를 형성할 때 개인적 자기개념이 점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태도를 강조하는 반면, 집합적 자기개념이 점화된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로부터의 압력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강조함을 보였다.

활성화된 지식구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에 의해서 점화된 지식구조가 후속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과 수용 현상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으로 인해서 기억에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식구조가 차별적으로 점화되고, 이 점화된 지식구조와 일관된 방향의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즉, 앞의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상호작용 가설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친사회성에 관한 지식구조가 차별적으로 점화되리라고 제안했다. 친사회성과 관련된 지식구조가 점화되면, 이 지식구조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 맥락보다는 대인 맥락 특히, 대인 관계에서 친사회성에 위배되는 부도덕 행동을 부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추론에 따르면, 사회적 수용을 경험하고 이를 외부귀인하면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발생한 부도덕 행위를 개인 맥락에서 발생한 부도덕 행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리라 예상된다. 반면에 기억에서 친사회성이 점화될 가능성이 낮은 나머지 조건들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조건 간에 두 가지 유형의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 판단이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했다.

가설3. 사회적 배척/수용의 원인을 외부귀인했을 때, 사회적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를 더 크게 처벌한다. 반면에 사회적 배척/수용의 원인을 내부귀인했을 때는, 관계 맥락의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사회적 배척과 수용 조건 간에 차이가 없다.

방 법

실험설계

2(사회적 배척/수용) × 2(내부귀인/외부귀인)

피험자간 이원 무선요인설계였다.

참여자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 학부생 67명 가운데, 실험에 관한 의혹 점검에서 실험가설을 알아차린 것으로 판명된 5명과 귀인 조작 점검에서 조작대로 응답하지 않은 2명 등 총 7명은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60명(남자 33명, 여자 2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n = 15$).

실험절차

참가자들은 실험 일주일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에 응답했다. 세 명의 참가자가 동성으로 실험에 참여했으며, 칸막이를 설치하여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실험에 참여한 후 몇 가지 실험 과제들을 평가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참가자들의 개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꾸며서 소개하고 “TPD”라고 명명한 개인유형 분류검사를 실시했으며, 잠시 후 참가자는 K형과 W형 중에 “K형”으로 분류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유형 환류 이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협업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이 질문들에서 얻어진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은 이후 팀에서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파트너 선택을 위해서 참가자 자신과 나머지 두 사람의 프로파일을 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참가자 본인의 응답을 출력하여 나머지 두 사람의 프로파일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두 사람의 프로파일은 사전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

다. 이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묻는 물음에 응답하도록 했다.

파트너 선택 이후, 참가자들의 파트너 선택 결과를 담은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나누어 주고 사회적 배척과 수용을 조작했다. 사회적 배척 조건의 참가자들은 나머지 두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반면에, 사회적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은 다른 두 사람 모두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TPD를 통해서 확인된 개인유형과 파트너 선택 결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를 담은 결과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 결과지를 통해서 귀인이 조작되었다.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개인유형 분류 결과와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함께 분석한 결과, 이 팀에서의 파트너 선택 결과는 참가자 자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92%)는 설명을 제시했다. 반면에 외부 귀인 조건에서는 파트너 선택 결과가 참가자 자신이 아닌 나머지 두 사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92%)는 설명을 제시했다. 따라서 내부귀인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배척되거나 수용된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도록 했고,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다른 두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도록 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실험이 끝났다고 설명하고, 영상자극의 처리에 미치는 영상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56개의 사진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관람한 후, 방해과제로 사전에 제작한 미로과제를 수행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조금 전 보았던 사진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함

으로써 불시 회상 과제를 실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조작점검 문항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했다. 질문지 응답 후 참가자들에게 다른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과제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전에 제작한 처벌과제를 실시했다. 이 과제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한 부도덕 행위에 대한 참가자들의 처벌판단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끝으로 실험에 대한 의욕 점검을 위한 질문지를 실시하고 실험을 종료했다. Debriefing은 모든 실험회기가 끝난 후 교/강사의 협조를 얻어 집단으로 실시했다.

실험과제

영상과제: 이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의 사건(예: 동료들과 협동하여 음식을 만드는 장면)과 개인적 행위 맥락에서의 사건(예: 혼자서 체조하는 장면), 그리고 중립 사건(예: 바다 경치)을 담고 있는 사진들을 시청했다. 이후 불시의 회상과제를 통해서 영상과제에 담겨있던 사진들을 7분 동안 자유롭게 회상하도록 했다. 이 과제에서 사람 혼자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홀로사진, 사람들과 관련 없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중립사진,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관계사진이라고 명명했다.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은 중립사진이었고, 그 사이에는 홀로사진, 중립사진, 관계사진 각각 18장씩 총 54장의 사진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이 사진을 보는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극 사진들은 사진 당 3초씩 슬라이드 형태로 제시했다.

처벌과제: 참가자들에게 부도덕 행위와 관련된 시나리오 두 편을 읽도록 하고, 각각의 시나리

오에서 부도덕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부도덕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개인 행위 맥락에서 부도덕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아무도 없는 버스에서 지갑을 주워서 현금을 훔친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시나리오를 읽은 후, 각 시나리오에 묘사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벌금으로 표시했다. 순서효과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조건에서 관계 맥락 사건과 개인 맥락 사건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했다.

종속 측정치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 Gardner 등(2000)의 절차를 참조하여 참가자들이 회상한 내용들을 다섯 가지 범주(홀로사진, 관계사진, 중립사진,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사진, 분류 불가능)로 분류한 자료에서 회상된 관계사진의 개수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했다. 관계사진은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의 사건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상은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회상으로 간주한다. 초두효과와 최신효과가 회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상과제에서 가장 처음에 제시된 사진과 가장 나중에 제시된 사진을 참가자들이 회상한 목록에서 제외하였을 때, 참가자들은 평균 15.38개를 회상했다. 한편, Higgins(1996)가 제안한 접근가능성 개념에 따르면 시계열상 회상 초기의 내용이 독립변수의 처치에 더 민감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회상량에 대한 분석에 더해, 참가자들의 회상 목록에서 초반부 33%인 5개 사진

들만을 가려내어 그 중에서 관계사진의 개수를 산출하여 추가로 분석했다.

처벌행동: 참가자가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이하 관계 맥락 사건)에 할당한 벌금 액수와 개인 행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이하 개인 맥락 사건)를 처벌한 금액 간의 차이 값을 처벌행동 종속치로 하였다. 관계 맥락 사건에 대한 처벌 금액과 개인 맥락 사건에 대한 처벌 금액을 각각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표준화하기 위하여 역수변환 후 이를 다시 상용로그 변환했고, 개인 맥락 사건 변환값(왜도 = .65, 첨도 = 1.92)에서 관계 맥락 사건 변환값(왜도 = 1.01, 첨도 = .78)을 뺀 차이값을 종속 측정치로 사용했다. 표준화 과정에서 역수변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차이값이 클수록 개인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보다는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를 더 크게 처벌했음을 의미한다.

결 과

사전 분석

영상과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회상한 총 923개의 반응을 실험 조건을 모르는 제 1 평정자가 다섯 범주(홀로사진, 중립사진, 관계사진,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사진, 분류할 수 없는 사진)로 분류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회상한 모든 내용을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선회화한 후 실험 조건을 모르는 제 2 평정자가 전체 반응의 32%에 해당하는 297개를 위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했다. 두 평정자들 간의 내적일치도(Cohen's K)는 .96으로 매우 높았다($p = .00$).

또한, 영상과제에 포함된 사진들의 정부정성(valence)이 각기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모르는 두 명의 평정자들이 각 사진을 7점 척도(1=정적, 7=부적)에 평정하였다. 두 평정자들의 평정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42, p = .00$), 제 1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이용하여 일원 변량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홀로사진($M = 3.33$), 중립사진($M = 3.05$), 관계사진($M = 3.61$) 간 정부정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F(2,53) = 1.21, p = .30$.

영상과제에 이용된 사진들에 나타난 등장한 사진들의 친사회성 정도 역시 실험 조건을 모르는 두 명의 평정자에 의해서 평정되었다(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두 평정자들의 평정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82, p = .00$), 분석은 제 1평정자의 평정 결과를 이용하여 일원 변량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홀로사진($M = 1.61$), 중립사진($M = 2.90$), 관계사진($M = 4.83$) 간 친사회성의 차이가 유의했다, $F(2,53) = 102.19, p = .00$. 이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차 추세가 유의했다, $F(1,53) = 108.37, p = .00$. 이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사회적 관계 정보가 높은 수준의 친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벌과제: 실험에 이용된 두 가지 처벌 시나리오가 연구자들의 의도대로 관계 맥락 및 개인 맥락으로 구분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심리학을 전공하는 12명의 평정자들로 하여금 관계 맥락 사건과 개인 맥락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각 사건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했다. 이를 피험자내 t검증한 결과, 예상대로

관계 맥락 사건($M = 6.50$)이 개인 맥락 사건($M = 2.92$)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 = 9.00, p = .00$.

독립변인 조작효과 점검¹⁾

사회적 배척/수용의 조작효과: 사회적 배척/수용의 조작효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점검했다. 첫째, 실험 후 질문지에서 파트너 선택 때 자신이 몇 명에게 선택되었는지 물었을 때,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보고하였다. 둘째, 실험 후 질문지에서 파트너 선택 결과를 받았던 당시의 기분을 물어서 사회적 배척과 수용에 따른 기분을 회고적으로 측정했다(1=매우 나빴다, 7=매우 좋았다). 이에 대한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사회적 배척/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55) = 251.80, p = .00, \eta^2 = .821$. 즉, 사회적 배척조건의 참가자들($M = 2.63$)이 수용조건의 참가자들($M = 6.16$)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 기분을 보고했다. 귀인의 주효과 및 배척/수용과 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12$). 셋째, 실험 후 질문지를 통해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후 참가자들이 경험한 소속욕구 수준을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회고적으로 측정했다. 이에 대한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배척조건($M = 4.18$)보다 수용조건($M = 5.00$)에서 더 높은 수준의 소속욕구를 보고했다. 소속욕구의 수준에서 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16$).

귀인의 조작효과: 귀인 조작효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점검했다. 첫째, 실험 후 질문지를 통해서 파트너 선택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 원인’과 ‘본인 자신 원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 내부귀인 조건의 모든 참가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은 원인을 본인 자신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2명의 참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이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은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귀인 조작의 기억 측정에서 잘못 응답한 2명의 참가자들은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실험 후 질문지에서 왼쪽에는 ‘나 자신 때문’,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쓰인 130mm의 직선 위에 파트너 선택 결과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왼쪽 끝에서부터 참가자들이 표시한 곳까지의 길이(mm)를 측정하여 귀인의 조작효과를 점검했다. 이 때 측정치가 작을수록 내부귀인에 가깝고 클수록 외부귀인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길이 측정치를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귀인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55) = 9.89, p = .00, \eta^2 = .152$. 즉, 참가자들은 내부귀인 조건($M = 39.90$)보다 외부귀인 조건($M = 69.17$)에서 파트너 선택결과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배척/수용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31$).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 및 처벌행동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이 사회적 관계 정보

1) 참가자들의 만성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독립변인 조작 점검 및 종속 측정치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참가자들의 자존감 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했다.

의 회상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했다. 우선, 참가자들이 회상한 모든 사진들 중에서 관계 사진의 회상량을 이용하여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p_s > .30$). 그러나 기억에서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Higgins(1996)의 주장에 근거하여, 독립변수의 처치효과에 민감하리라고 가정되는 초기 회상 반응들만을 분석했을 때는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얻어졌다. 즉, 회상 목록의 초기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응답(33%) 가운데, 관계 사진의 회상량을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했을 때, 사회적 배척/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55) = 9.85$, $p = .00$, $\eta^2 = .152$.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척조건의 참가자들($M = 1.23$)보다 수용조건의 참가자들($M = 2.07$)이 관계 사진을 더 많이 회상했다. 이는 사회적 관계 정보가 높은 수준의 친사회성을 내포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 경험이 사회적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을 유

발한다고 예상한 가설 1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가설 2와 달리,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 = .58$). 회상 초기 33%의 자료에서 관계사진의 회상량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초반부 50%의 자료 중에서 관계사진의 개수로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분석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얻어졌으며, 전체 회상개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했을 때도 결과의 패턴은 동일했다.

처벌행동에서 나타난 실험조건 간 차이는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와 개인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부과한 벌금액의 차이값(변환값)을 이용하여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배척/수용의 주효과 및 귀인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_s > .33$). 그러나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경계선에서 유의했다, $F(1,55) = 3.51$,

표 1. 관계사진 회상량의 평균(표준편차)

	배척 평균 (SD)	수용 평균 (SD)	전체 평균 (SD)
내부귀인	1.27 (.88)	1.93 (1.16)	1.60 (.07)
외부귀인	1.27 (.59)	2.20 (.01)	1.73 (.94)
전체	1.27 (.74)	2.07 (1.08)	1.67 (1.00)

표 2. 관계사진 회상량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η^2
자존감	0.30	1	0.30	0.33	0.57	0.006
사회적 배척/수용(A)	8.76	1	8.76	9.85	0.00	0.152
귀인(B)	0.37	1	0.37	0.42	0.52	0.008
A*B	0.31	1	0.31	0.35	0.56	0.006
오차	48.90	55	0.89			
전체	59.33	59				

$p = .07$, $\eta^2 = .060$. 이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p > .54$),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55) = 4.14$, $p = .05$. 즉, 가설 3과 일관되게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M = -.23$)보다 수용($M = .31$)조건에서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를 더 크게 처벌한 반면,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M = .25$)과 수용 조건($M = .06$)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계 맥락의 부도덕 행위와 개인 맥락의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할당한 벌금액수(변환값)의 차이값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원 피험자간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한편, 전체회상량과 자존감을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실험참가자의 성별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정보회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배척/

수용과 귀인, 그리고 성별 간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50) = 6.89$, $p = .01$. 이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결과, 남성 참가자들은 사회적 수용 조건($M = 2.19$)에서 배척 조건($M = 1.18$)보다 사회적 정보를 많이 회상했지만, 이 차이는 귀인이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F(1,27) = 1.48$, $p > .23$. 반면에, 여성 참가자들은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수용($M = 1.29$)과 배척 조건($M = 1.43$) 간에 사회적 정보회상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 수용 조건($M = 2.57$)에서 배척 조건($M = 1.33$)보다 사회적 정보를 많이 회상했다, $F(1,21) = 6.11$, $p = .02$. 이는 본 연구에서 가설화한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 참가자들에게서는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처벌행동에서는 어떤 변수도 성별과 상호작용하지 않았다($ps > .29$).

표 3. 관계 맥락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 평균(표준편차)

	배척 평균 (SD)	수용 평균 (SD)	전체 평균 (SD)
내부귀인	0.25 (.38)	0.06 (.96)	0.15 (.72)
외부귀인	-0.23 (.95)	0.31 (.44)	0.04 (.77)
전체	-0.01 (.75)	0.18 (.74)	0.10 (.74)

주: 값이 클수록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를 개인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보다 크게 처벌했음을 의미.

표 4. 관계 맥락 부도덕 행위의 처벌에 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η^2
자존감	0.23	1	0.23	0.43	0.52	0.008
사회적 배척/수용(A)	0.53	1	0.53	0.98	0.33	0.017
귀인(B)	0.27	1	0.27	0.50	0.48	0.009
A*B	1.90	1	1.90	3.51	0.07	0.060
오차	29.79	55	0.54			
전체	32.66	59				

기분의 매개효과

사회적 정보회상 및 처벌행동에서의 실험 조건 간 차이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목적으로 실험 후 질문지를 통해서 얻은 기분 측정치를 이용하여 두 가지의 매개분석을 추가로 실시했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여 기분이 사회적 배척/수용과 사회적 정보회상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척/수용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 = 1.77, p = .00$), 사회적 배척/수용이 사회적 정보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나($\beta = .39, p = .00$), 사회적 배척/수용과 기분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사회적 배척/수용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증가하여 기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이 처벌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기분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했을 때에도 기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사회적 배척/수용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기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관된다(참조: Baumeister et al., 2005; Williams et al., 2000).

사회적 배척/수용-정보회상-처벌 행동 간 관계에 대한 기분의 매개효과 검증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기분-처벌행동 간 관계가 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귀인의 조절매개모형을 탐색적으로 실시했다. Muller, Judd 및 Yzerbyt(2005)는 결과에 대한 처리효과가 매개되는 과정과 조절되는 과정이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매개된 조절과정과 조절된 매개과정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조절된 매개과정은 처리효과에 대한 매개과정이 조절 변인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조절 변인이 개인차 변인이라면 조절된 매개과정은 처리와 결과를 중재하는 매개과정이 사람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약 조절변인이 상황변인이라면 매개과정이 상황의 함수로 달리 나타남을 뜻한다. 여기서 조절변인의 작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전반적 처리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처리효과를 만들어내는 매개과정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과 처벌행동 간 관계에서 기분의 매개효과를 귀인이 조절하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기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기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경험(각각 -1과 1로 코딩)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beta = 1.63, p = .00$),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이 처벌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며($\beta = .27, p = .05$), 사회적 배척/수용과 기분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기분은 처벌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beta = .22, p = .01$), 사회적 배척/수용이 처벌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40, p = .12$; Sobel $Z = 3.25, p = .0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이에 대한 귀인이 사회적 정보의 처리와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과 귀인을 조작했고, 종속 측정치로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과 대인 관계 맥락에서의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행동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정보의 회상 측정치에서 사회적 배척/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했으며, 가설 1과 일관되게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사회적 사건을 더 많이 회상했다. 둘째,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에서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처벌행동에서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경계선에서 유의했으며, 가설 3과 일관되게 내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부귀인 조건에서는 사회적 수용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관계맥락의 부도덕행위를 더 크게 처벌했다.

실험 후 질문지를 통해서 측정한 부가적 종속 측정치들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척 조건의 참가자들이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부적 기분을 보고했다. 이는 선행연구(Buckley et al., 2004; Warburton et al., 2006; Williams et al., 2000; Williams & Sommer, 1997)와 일관된 결과이다. 둘째, 예상과 달리 사회적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속욕구를 보고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상세히 다룬다. 셋째, 기분이 사회적 배척/수용과 사회적 정보의 회상 간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예: Buckley et al., 2004)와 일관된다. 끝으로, 사회적 배척/수용이 처벌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기분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귀인의 조절매개 모형을 탐색적으로 알아본 결과, 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을 유발함을 보인 선행연구(Gardner et al., 2000)와는 달리, 친사회성 정보가 특출한 사회적 정보를 사용했을 때에는 사회적 수용 경험이 사회적 관계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을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실험 결과, 사회적 사건의 총 회상량에서는 사회적 배척과 수용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회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총 56개의 사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부하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일 수 있다. 즉, 28개의 생활사건을 문장으로 제시한 Gardner 등(2000)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전체 회상량은 독립변수의 처치 효과에 민감하지 못한 측정치였을 수 있다. 이 해석과 일관되게,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회상측정치인 초기 회상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사회적 사건을 많이 회상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들의 친사회성 정도를 평정했을 때 관계 사진이 홀로사진이나 중립사진보다 더 친사회적으로 평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사회적 수용경험이 친사회성을 점화시켰고 그에 따라서 친사회적 정보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 나타났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친사회성의 점화에 근거한 해석과 달리, 본 연구에서 Gardner 등(2000)의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얻어진 데 대한 대안적 해석도 가능하다. 첫째,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페러다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Gardn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이미 일정수준 소속을 경험한 상황에서 배척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척 이후 집단에 다시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 상호작용 없이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후 파트너를 선택했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회적 배척/수용을 조작했기 때문에, 초기에 참가자들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지각한 정도가 Gardner 등(2000)의 연구와 달랐을 수 있다.

둘째, 친사회성과 관련된 의미망의 점화가 아니라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이 개인의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Kuhnén과 Oyserman(2002)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초점은 대상-맥락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맥락 의존적 처리를 유발하고, 독립적 자기-초점은 맥락에 관계없는 대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맥락 독립적 처리를 유발한다. 즉, 자신을 타인, 맥락, 상황과 상호의존적이라고 볼 때는 특정 사회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맥락-의존적 처리가 우세하고, 자신을 타인, 맥락, 상황과 독립적이라고 볼 때는 타인의 생각, 감정, 반응 등의 상황 변인들을 무시하고 대상정보만을 모아서 통합하는 맥락-독립적 처리가 우세해진다. 이 주장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사회적 정보를 많이 회상한 것은, 친사회성에 관한 의미망의 점화라기 보다는 상호의존적 자기가 우세해진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배척/수용의 경험이 사회적 정보의 회상에 미치는 영향이 친사회적 정보의 의미망 점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보처리의 방식에 영향을 주어 맥락 의존적 정보처리와 맥락 독립

적 정보처리가 유발되는데 기인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회적 수용 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소속욕구를 보고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소속욕구 측정 방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사회적 배척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예: Pickett et al., 2004)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 조작 직후 참가자들이 실험 집단에 대해서 느낀 소속감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요구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속욕구를 회고적으로 측정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소속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항들(예: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은 명확하게 실험실에 함께 참여했던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전반적 소속감을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속욕구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결과는 측정방식에 기인한 인공효과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파트너 선택 결과가 참가자의 내외집단 지각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사회적 수용조건의 참가자들이 배척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소속욕구를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파트너 선택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척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오히려 낮아진 반면, 수용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이후 피험자들이 보고하는 소속욕구 수준에서 내외

집단 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처벌행동에서는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의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적 관계 정보의 회상에서는 예상했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회상과제와 처벌과제 자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회상과제는 불시에 실시했으므로 참여자들이 영상자극을 보는 동안 특정 방향으로 통제처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처벌과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자세히 읽고 적절한 처벌정도를 판단하는 인지적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제였으며, 그에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의 통제처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정도의 차이가 각기 다른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척/수용-기분-처벌행동의 관계에 대한 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분이 유발되고, 이러한 기분의 효과로 인해서 관계 맥락의 부도덕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전반적 기분을 측정하는데서 벗어나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으로 야기되는 구체적 개별 정서를 측정하여 귀인과 정서가 사회적 배척/수용과 처벌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경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회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사회적 정보회상과 관련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본 연구에서 가설화했던 사회적 배척/수용과 귀인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성 참가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 참가자들은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 수용을 경험하고 이를 외부귀인 했을 때 내부귀인 했을 때보다 사회적 정보를 많이 회상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성차가 나타난 배경이 분명치 않으며, 추후 연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을 참가자들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파트너 선택 결과를 이용하여 조작했기 때문에, 파트너 선택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배척/수용이 조작될 때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 배척/수용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이 실제 상호작용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의 지속적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실험패러다임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수용이 참가자 자신 또는 다른 참가자들 때문이라고 믿도록 하는 방식으로 귀인을 조작했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에 대한 귀인을 배척자의 내부요인과 외부 상황요인, 그리고 피배척자의 내부요인과 외부 상황요인으로 상세화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행해진 사회적 배척 연구들은 사회적 배척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연구자마다 배척의 원인이나 결과 변수들을 취사선택하여 다룬 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척/수용

에 따른 정보처리 및 행동을 연계하여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배척/수용의 후속 결과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이 야기하는 심리 및 행동특성을 상세화함으로써, 장차 사회적 배척으로 인한 개인의 부적응이나 대처행동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이춘재, 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해경, 김혜원(2001).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정선진, 이은혜, 고윤주, 김영신 (2001). 학령기 행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22(3), 91-106.
- 최훈석, 조성숙, 용정순, 권영미(2006). 사회적 배척과 수용 경험이 개인의 정서, 공격행동 및 과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51-52.
-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1999). 상담과 심리치료: 초등학교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95-108.
- Abrams, D., Hogg, M. A., & Marques, J. M. (2005). A social psych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D. Abrams, M. A. Hogg, & J. M. Marque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Bargh, J. A., Chen, M., & Burrows, L. (1996). The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cep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30-2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Dwall, C. N., G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589-60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e.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17-827.
- Brewer, M. B., & Gardner, W. L. (1996). Who is this "we"? Level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uckley, K., Winkel, R., & Leary, M. R. (2004).

-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14-28.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Hoboken, NJ: Wiley.
- Gardner, W. L., Pickett, C. L. &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86-496.
- Gardner, W. L., Pickett, C. L., & Knowles, M. (2005). Social snacking and shielding: Using social symbols, selves, and surrogates in the service of belonging needs.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 227-241). New York: Psychology Press.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133-168).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son, R. E., Selenta, C., & Lord, R. G. (2006). Wh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the self-concept meet: Consequences for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9, 175-201.
- Ku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492-499.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ieberman, M. D., & Eisenberger, N. I. (2006). A pain by any other name (rejection, exclusion, ostracism) still hurts the same: The role of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in social and physical pain. In J. T. Cacioppo, P. S., Visser, C. L. Pickett (Eds.), *Social neuroscience: People thinking about thinking people* (pp. 167-187). Cambridge, MA: MIT Press.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Pickett, C. L., Gardner, W. L., &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95-110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roeder, D. A., Penner, L. A., Dovidio, J. F., & Piliavin, J. A. (1995). *Psychology of helping and altruism: Problems and puzzles*. New York: McGraw-Hill.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06-615.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3). Social exclusion and the deconstructed state: Time perception, meaninglessness, lethargy, lack of emotion,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09-423.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213-220.
- Wheeler, S., & Petty, R. (2001). The effect of stereotype activation on behavior: A review of possibl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27, 797-826.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Williams, K. D., & Sommer, K. L. (1997). Social ostracism by coworkers: Does rejection lead to social loafing or compen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693-706.
- Ybarra, O., & Trafimow, D. (1998). How priming the private self or collective self affects the relative weights of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363-370.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560-567.

논문접수일: 2007년 1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2월 26일

게재결정일: 2007년 3월 5일

Effects of Social Exclusion/Inclusion and Causal Attribution up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unishment Behavior

Sung Sook, Cho Hoon-Seok,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social exclusion/inclusion and individuals' causal attribution affect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ubsequent behavior. A total of 60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a study that employed a 2(Social Exclusion/Social Inclusion) X 2(Internal Attribution/External Attribution) between subjects design. Drawing on previous research demonstrating selective memory for social information on the part of the excluded (Gardner, Pickett, & Brewer, 2000), the present study contrasted two opposing viewpoints regarding how individuals process social information after experiencing social inclusion or exclusion.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result indicated that selective memory for social information was pronounced more when individuals experienced social inclusion rather than social exclusion. Moreover,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dicated that the included assigned higher levels of punishment to a target person than did the excluded in the external attribution condition. In contrast,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included and the excluded in the internal attribution condition.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an assimilative effect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Social exclusion/inclusion; Attributi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unishment behavior.